

패티김, 10년만의 무대 “행복합니다”

KBS2 ‘불후의 명곡’ 녹화...26일·12월3일·10일 ‘3주 특집’ 방송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60년 전 데뷔했을 때만큼 설레고, 긴장되고, 흥분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불후의 명곡-아티스트 패티김 편’ 녹화 현장에서 ‘디바’ 패티김이 은퇴 후 10여년 만에 무대에 올랐다. (사진)

무대 정중앙에 비친 그림자가 양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자 가립막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패티김이 관객을 마주했다. 그가 처음 부른 노래는 1983년 발매한 타이틀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84세 나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량에 첫음절부터 객석 곳곳에서는 숨죽인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내 가슴에 붉은 벌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1절이 끝나고 간주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하나둘씩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울렸다. 패티김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벽차다는 듯이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어 포개 채 객석의 열린 환호를 두 눈에 담았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그는 노래할 때와는 달리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안녕하십니까”고 운을 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워해 주신 것만큼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고, 무대가 그리웠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1958년 8월 미 8군 무대에서 노래를 시작한 패티김은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디바’로 사랑받았다. 장르의 경계 없는 유려한 창법, 카리스마와 세련됨을 무기로 ‘서울의 찬가’, ‘가시나무새’, ‘못잊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2012년 “건강하고, 노래도 잘하는 멋진 모습으로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다”며 돌연 은퇴한 패티김은 이날 여전히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고 자신의 노래로 경연을 펼칠 후배들을 맞이했다. 가수 박기영, 옥주현, 박마마의 박민혜, 황지열, 김기태 등이 무대에 올랐다. 손녀, 손자뿐인 걸그룹 첫사랑과 보이그룹 엑스디 너리 히어로즈도 대선배의 명곡을 각자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다.

패티김은 길어지는 녹화 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꼳꼳한 자세로 앉아 후배들의 무대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른 것보다 몇 배는 잘 불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머리 위로 힘껏 손뼉 쳐주며 손가락 하트를 날리기도 했다.

패티김은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에는 객석에 앉은 이들과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고, 손뼉을 날리기도 했다. 관객들은 “(10년전) 그 대로이십니다”, “팬 서비스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등의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날 녹화장에는 520여 명이 꽉 메워 앉았다. 좌석이 부족해 이동 통로 계단에 쭈그려 앉은 이들도 더러 있었다. “패티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고 적힌 응원 메시지가 곳곳의 휴대전화 전



광판 애플리케이션에서 반짝였다. ‘불후의 명곡-아티스트 패티김 편’은 특별히 3주 특집으로 편성됐다. 오는 26일, 내달 3일, 10일 오후 6시 10분 KBS 2TV에서 시청자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클래식으로 만나는 신화 속 이야기

광주시향 ‘GSO 오티움 콘서트’ 12월8일 ACC 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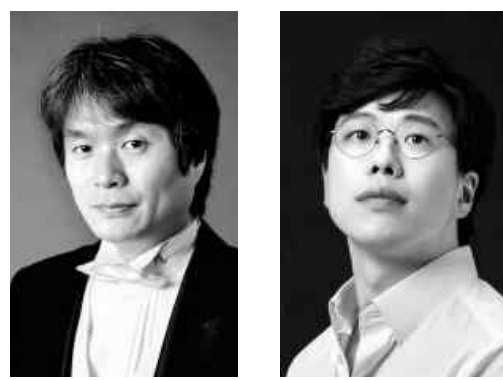
신화 속 이야기가 담긴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시리즈 ‘GSO 오티움 콘서트’의 여섯번째 무대인 ‘신화’가 12월 8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공연은 국내외에서 절정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와 ‘Club BALCONY’ 편집장이자 ‘이지영의 클래식 노트’를 연재하고 있는 이지영 칼럼니스트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지휘는 김영연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맡는다. 무대에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바로크 음악 거장인 마사키스즈키와 ‘b단조 미사’ 솔리스트로 데뷔해 세계적으로 역량을 펼치고 있는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함께한다.

공영언의 지휘로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서곡’으로 포문을 열고 정민호가 글록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중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하리’, 하세의 ‘오르페우스’ 중 ‘여전히 방황하는 이’, 브로스키의 ‘이다스페’ 중 ‘진실의 그늘이여’를 선



김영연 정민호

보인다. 피날레로 교향악단의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C장조 ‘주피터’ 1, 4악장을 무대에 올리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티켓은 전석 1만 원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올해의 책 대상에 ‘귀스타브 도레의 환상’

‘책을 만드는 사람들’ 선정

올해의 책 대상에 알릭스 파레와 쉬외르 에르멜의 ‘귀스타브 도레의 환상’ (한스미디어)이 선정됐다.

건강한 출판문화의 발전과 성장을 연구하는 모임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책은 24개 출판사 88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 중수 총 10종이며 대상 1종과 6개 부문별 9종이다.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부문 올해의 책에는 모두 3권이 뽑혔다.

‘시민의 한국사’ (2권·돌베개), ‘일제 식민사학 비판 총서’ (8권·사회평론아카데미),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갈라파고스) 등이다.



문학 부문에는 ‘우정’ (그린비 출판사)이, 경제·IT 부문에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한빛비즈)가 선정됐다. 또한 실용부문에는 ‘시니암의 오늘도 완람 유아식’ (헤지원)이 선정됐다. 어린이·청소년 부문은 ‘늘보 씨, 집을 나서다’ (한울림스페셜)와 ‘호랑이 생일날이었다’ (우리학교)가 뽑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5시(장소 미정)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4258-977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튜브·TV’ 경계 무너진 예능...유튜브 콘텐츠 TV 출격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편성 박명수 등 유튜브 채널 운영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와 TV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유튜버들이 TV 프로그램의 게스트나 메인 MC로 활약하는가 하면, 인기 유튜브 콘텐츠가 TV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JTBC는 지난 9월 새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선보였다. 도로 위 기상천외한 사건·사고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문철TV’는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례별로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주는 콘텐츠로 구독자가 162만 명에 달한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 호평이 쏟아진 SBS TV ‘지선씨네마인드’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영화를 해석해주는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다. 원래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스



인기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

핀오프 콘텐츠로 유튜브에 업로드됐지만, 반응이 좋아 지난 9월부터 ‘황금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 11시 20분에 정규 편성됐다.

인기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은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tvN ‘줄 서는 식당’에서 개그우먼 박나래와 함께 공동 진행자로 프로그램에 이끌고 있다.

반대로 TV에서 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경우도 많다. PD들도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상과 공채 개그맨들이 운영하는 채널 ‘피식대학’, ‘웃박스’가 대표적이다. 개그맨 박명수는 JTBC의 유튜브 채널인 ‘활명수’를 운영하고 있다. 개그맨 이용진의 ‘바퀴달린 입’, ‘튀르키예즈 언더블락’은 유명 스타가 출연하는 편의 경우 조회 수가 400만 회가 넘어가기도 한다.

MBC의 ‘스타 PD’였던 김태호 PD는 MBC를 퇴사하고 개인 제작사를 설립해 유튜브 콘텐츠 ‘부루마블 세계여행’을 다음 달 선보인다. SBS에서 ‘런닝맨’을 연출했던 고동완 PD도 이적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워크맨’, ‘네고왕’, ‘발명왕’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재단, 서로 배움 워크숍 ‘다정한 참견’

16~17일 담양리조트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비롯해 예술가,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서로 배움 워크숍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6일~17일 담양리조트에서 2022문화예술교육 서로배움워크숍 ‘다정한 참견’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다룬 시선과 아이디어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우수 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기획 등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6일은 ‘낯선 사이 다른 동네 : 서로를 알아가기’, ‘지역의 예술실현들 공유’, ‘오답을 말하는 용기 : 개인의 시선과 고민, 이슈’ 등으로 구성됐으며 17일은 ‘다정한 피드백 : 작당의 실천법 찾기’로 전일 팀별 네트워크의 결과물을 함께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예술가, 기획자들 중 새로운 기획과 네트워크 등이 필요한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문의 062-670-745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